

편리하고 편한 삶을 원한다면, 다시 선택하라.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눅 9:23)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려는 핵심 내용이 이해되는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살기 위해 죽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제안은 풍족한 삶이나 성공이 보장된 삶, 혹은 고통과 몸부림과 갈등이 없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죽으라고 하신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예수님이 바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고 계신 것일까? ‘사는 것’인가, ‘죽는 것’인가? 물론 그 답은 둘 다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나라의 거꾸로 뒤집힌 신학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장하셨다. “첫째가 되고 싶거든 꼴찌가 되어라. 자유로워지고 싶거든 종이 되어라. 살고 싶거든 먼저 죽어라.” 합리적으로 들리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미시는 초대는 이것이다. “살기 위해 죽어라!” 그러나 죽으라는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의 육체와 뼈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다. 그 초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관련된 얘기다. 사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 매일 매 순간마다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초대는 영적으로 죽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십자가는 죽인다. 그리고 정복하고, 압도하며, 승리한다. 언제나 그렇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초대는 그야말로 날마다 죽으라는 초대이다. 그것은 주일 하루가 아니라 매일 우리 육체의 욕망을 죽이라는 부르심이요, 자아에 대하여 죽으라는 부르심이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복順服하라는 부르심이요, 유혹의 속삭임을 묵살하라는 부르심이요, 수백만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순간적으로 누리는 육정을 만족시키는 매력에 흔들리지 말라는 부르심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편안하거나 편리하지 않다. 그러나 살고 싶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하다.

-제이미 스나이더의 “리얼” 중에서-



창립 1974년 11월 3일

주보 제 43권 49호 2017년 12월 3일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사회: 박태열 목사

경배와 찬양 (Praise)

* 시작기도 (Opening Prayer)

다같이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이건형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s)

사회자

봉헌 (Offering) 346장 (새찬211장) 1,2,3절

다같이

* 봉헌송 (Offering Hymn) 1장

다같이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사회자

성경봉독 (Scripture) 누가복음 10:38-42

다같이

성가대 찬양 (Choir Anthem)

예향찬양대

설교 (Sermon)

박태열 목사

사랑의 삶을 이루는 세가지 싸이클

세번째: 하나님으로 부터 사랑을 받은것 3

성찬예식 (Holy Communion)

파송찬양 (Closing Hymn) 219장(새찬540장)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박태열 목사

[예배안내]

주일대예배 / 11am

주일학교 / 11am

중고등부예배 / 11am

EM Worship / 1:15pm

[주중예배/모임]

새벽예배 / 5:30am(화-토)

Acts29 기도 / 6am(주일)

수요예배 / 8pm

속회 / 매달 1회 셋째주

성인성경공부 / 1pm(매달 첫째, 셋째주일)

한국학교 / 3pm-6pm(토)

[다음주일 대표기도]

서병일 권사

교회 / 교우 소식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12월 24일(일) 성탄주일예배는 오전 11시에 주일학교, EM과 함께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 ◆ 12월 24일(일)에 크리스마스이브 예배는 없습니다.
- ◆ 12월 31일(일) 송구영신예배는 저녁 8시에 모여서 떡국을 먹으면서 윷놀이를 하고 10시 30분에 속회별 장기자랑을 시작합니다.
- ◆ 1월 2일(화)부터 7일(일) 새벽 5시 30분에 **신년특별새벽예배**가 있습니다. 남선교회에서 간단한 아침식사 준비합니다.
- ◆ 1월 7일(일) **새해 첫 주일**에는 한복있으신 분들은 한복을 입고오세요. 예배후 바로 **가정별로 신년축복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 ◆ 1월 13일(토)부터 14일(일)까지 1박 2일로 **제직신년하례회**가 평화기도원에서 있습니다.
- ◆ 친교는 서낙선권사님께서, 제단헌화는 김중열성도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부서별 소식

[목회협조위원회]

- ◆ 다음주일(12/10) 친교후에 목회협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월 중 모임 / 행사

- 12월 24일(일) 11:00am 성탄주일연합예배
- 12월 31일(일) 8:00pm 떡국와 윷놀이, 10:30pm 속회별 장기자랑 및 송구영신예배
- 1월 2일(화)-7일(일) 5:30am 신년특별새벽예배
- 1월 7일(일) 11:00am 가정별 신년축복기도
- 1월 13일(토)-14일(일) 제직신년하례회

지난 주 일 통계

헌금총액	\$2,626	출석총인원	40
십일조	\$850	KM 본예배	30
주정(주일)	\$285	주일학교	6
감사헌금	\$1,410	EM 예배	4
선교헌금	\$55		
주일학교	\$7		
EM	\$19		

새가족 등록절차 안내

- ◆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 ◆ **새가족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 (4주)과정을 마치시고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
- ◆ **새가족 교육일정:**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니다.
- ◆ **새가족 환영식:**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그 다음주일 본 예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

12월 친 교 / 헌 화

3	서낙선권사 / 김중열성도
10	채정원집사 / 장경숙집사
17	김인자권사 / 서낙선권사
24	여선교회 / 여선교회
31	이영화집사 / 최영숙권사

교회를 섬기시는 이

담임목사:	박태열		
교육협동목사:	박태익		
지휘자:	연석윤	반주자:	이원희
시무장로:	최종인	이건형	
원로장로:	이우인		
파송선교사:			